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4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Rows list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4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Rows list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4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Rows contain horoscope information for different zodiac signs.

“메이비는 ‘복덩어리’”



결혼 앞둔 윤상현, 영화 ‘덕수리 5형제’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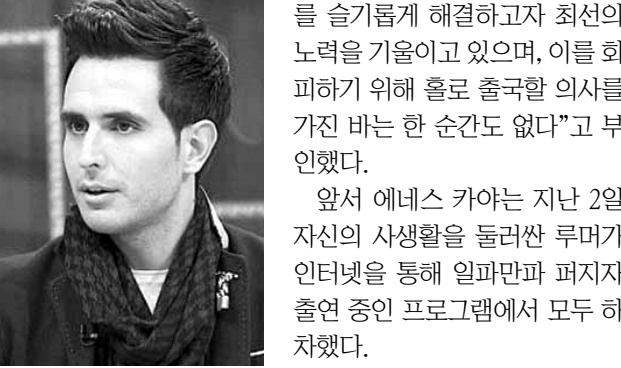
“(메이비는) 알면 알수록 팬들은 친구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살갑게 해주는 것도 고맙고요. 정말 복덩어리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년 2월 결혼을 앞둔 배우 윤상현(41)은 잔뜩 들뜬 모습이였다. 오는 4일 개봉 예정인 영화 ‘덕수리 5형제’ 홍보차 잡힌 인터뷰에서도 예비 신부인 작사가 겸 가수 메이비(본명 김은지·35)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윤상현은 3일 신문로 한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 친구(메이비)랑 거의 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니 오래오래 같이 살아도 별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상현과 메이비는 지난 4월 소개로 만나 7월부터 교제했으며 최근 양가 상견례를 마쳤다. 교제 사실은 윤상현이 최근 방송된 SBS TV ‘힐링캠프’에서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힐링캠프’ 섭외가 들어와서 다른 분들처럼 영상편지 한번 날려보자 생각했죠. 그 친구에게는 얘기도 안 하고 힐링캠프에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돌려 하려고 했는데 광규형(김광규)이 자주 누군지 알려달라고 너무 불쌍한 표정을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피노키오’, ‘나 혼자 산다’에 가서 떠돌고 다녔더라고요. 하하.”
윤상현은 “직접적으로 메이비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결혼 결심이 섰었다”며 “집안 얘기,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 좀 도와줘’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 얘기를 좋게 받아줬다”고 했다.
“저희 집안이 대가족이에요. 저도 장손이고 제 아버지도 장손이시죠. 식구도 많고 제사도 많아요. 1년에 8~9번은 제사가 있죠. 그런 얘기를 처음 만날 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절에 오면 깜짝 놀랄 거다. 집안에 사람이 다 못 들어가 정도로 사람이 많다. 제사 지내고 나면 2교대로 밥 먹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로.”
윤상현은 어머니가 나이가 드신 이후로 친척 어른들이 예전처럼 저녁까지 머물지 않고 아침만 드시고 가시는 모습에 빨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엄태웅, 딸 지온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합류



배우 엄태웅(40) 부녀가 인기 절정의 육아 예능프로그램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합류한다. 엄태웅은 지난해 태어난 딸 지온(2)과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심엔터테인먼트가 2일 밝혔다. 엄태웅 부녀는 이번주 녹화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들이 출연한 분량은 내년 1월4일 첫방송된다. 앞서 엄태웅은 발레리나 윤혜진(34)과 지난해 1월 결혼해 6월 첫딸을 얻었다. 윤혜진은 원로배우 윤일봉의 딸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출신이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일요일 예능계 시청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다. 한편,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 타블로와 딸 하루는 오는 28일 방송을 끝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은 “타블로가 개인적인 스케줄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그 바통을 엄태웅 부녀가 잇는다”고 밝혔다.

에네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불륜설’ 등 인터넷 루머 사실 무근 주장
‘불륜설’ 등 인터넷 루머에 휩싸인 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30·사진)가 3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네스 카야의 법륜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건의 허정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에네스 카야는 인터넷의 글 또한 대중의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 본인에 관한 옳지 않은 표현조차도 수용하고 침묵하고자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왜곡 또는 과장된 주장에 대한 침묵은 반복되는 무한한 억측을 낳을 수 있어 고민 끝에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본인이 거론된 현 사태의 모든 사실 여부를 법에 따라 밝히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에네스 카야의 터키 출국설에 대해서는 “에네스 카야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현 사태

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홀로 출국할 의사를 가진 바는 한 순간도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에네스 카야는 지난 2일 자신의 사생활을 둘러싼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자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허 변호사는 “에네스 카야는 사실 여부를 떠나 본 사태로 인하여 현재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그의 소중한 벗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것이며,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 성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